

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, 2023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

윤 박형기기자 | 승인 2023.05.29

선제적 재난대응 및 역량강화



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는 남사저수지에서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'2023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'을 하고 있다. 사진=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 제공

경주지역 농업기반 시설이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재난대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이 진행됐다.

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는 지난 26일 남사저수지에서 '2023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'을 실시했다.

이번 훈련은 현곡면 남사리에 위치한 남사저수지의 지진에 의한 저수지 제당 및 외측 사면 유실 등의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, 상황 단계별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, 응급복구, 주민대피 등을 현장에서 실전처럼 실시해 직원들의 재난에 대한 위기 대

응능력 및 비상대처 의식을 제고했다.

이관우 경주지사장은 "직원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재난대응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만큼,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공사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며 "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비상상황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박형기기자